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5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22일 (음력 1월 7일) 목요일

## 광주 광(光)융합기술 정부지원 청신호 커졌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光)융합기술에 대해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광주시의 광융합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21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광 기술개발의 기반을 지원하고 기술표준화와 광기술 분야 전

장병완 대표발의 '광융합 지원법' 국회 산자위 통과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광기술에 본격 정부지원 기대

문인력 양성 등 광 융합기술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광 기술은 IoT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돼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기술에 대해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 장병완 의원은 "광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나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광융합기술 지원법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추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 광기업이 세계의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 법이 국내 광 융합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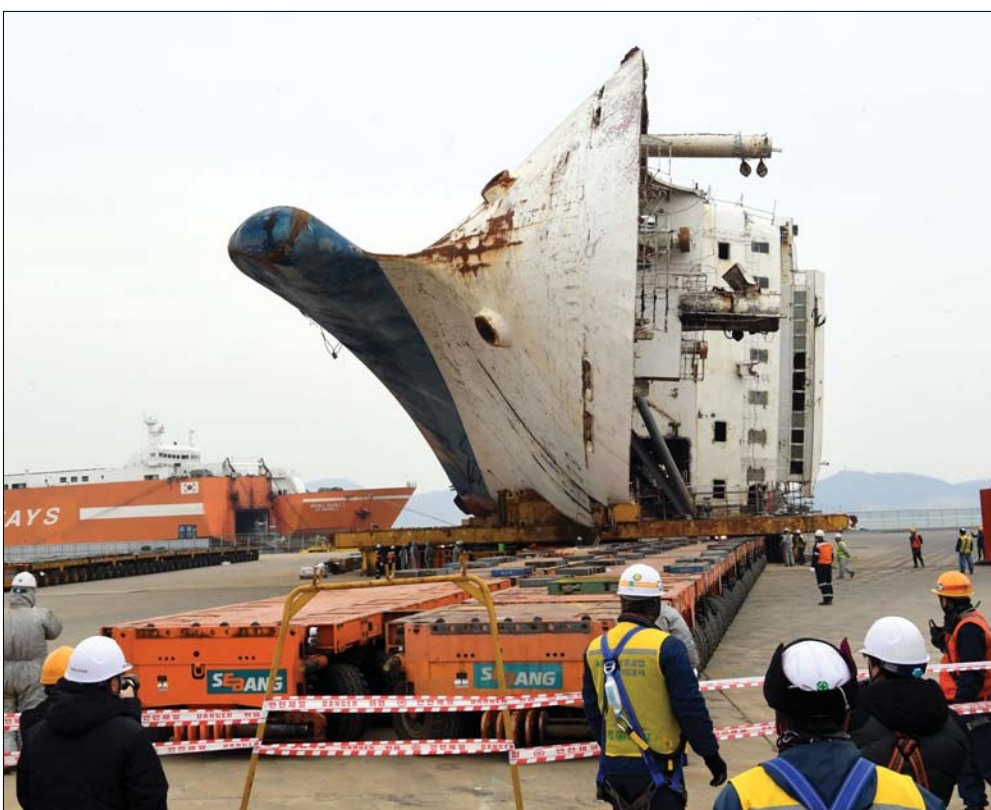
이윤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급 시회와 시장 출마 과정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연일 심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업무처리 1호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후임자로도 있는 상태에서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 날 자신은 광주 시장에 나가겠다고 출마선언을 했다"며 "일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사실상 자신만의 일자리를 찾아 나선 셈이다"고 질타했다.

또 "출마화면을 하면서 대통령께 권려도 받았고 용기도 받았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 대통령이 이산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재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 사진 = 뉴시스

## 세월호, 거치 316일만에 직립 위한 평행이동 완료



목포신항만에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가 육상 거치 316일만에 부두 안벽으로 평행이동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은 21일 목포신항만에 부두 안벽과 직각 상태로 놓여 있던 세월호를 수평 이동시키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세월호가 인양돼 육상 거치된 지 317일째(316일만)다. 세월호는 선수가 왼쪽으로 선저(밀바닥)는 바다 쪽을 향하게 거치됐다. 해상에서 약 50~60m 가량 떨어진 위치다.

1.5km 이동하는데 '3시간' 소요  
해상서 1만급 크레인으로 직립  
늦어도 6월 14일까지 마칠 예정

선조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하부를 받치는 수평빔 아래에 설치한 모듈 트랜스포터 364축(특수운송장비·축당 30t급)으로 선체를 들어 이동시켰다.

폭 10cm 내외로 저속 이동(시속 1~1.2km)했으며, 기존 위치에서 1.5km 가량 이동하는 데 3시간 가량 걸렸다.

선체를 육상에 놔둔 채 해상에서 1만급 크레인으로 직립시키는 공법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평행이동 작업이 진행됐다.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5월까지 선체 측면 33곳에 'L'자 형태 철제 수직빔'을 보강 설치한 뒤 해상서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일으켜 세울 방침이다.

최남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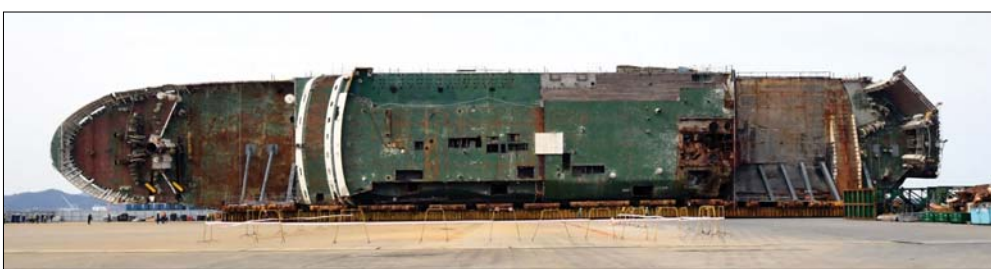
이윤성



최경환



이윤성



21일 오전 목포신항만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세월호를 부두 안벽 쪽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작업을 벌였다. 사진 위쪽은 지난 19일 부두 안벽과 직각 상태로 놓여진 세월호에 모듈 트랜스포터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래쪽은 부두 안벽(바다와 50~60m 떨어진 지점)으로 평행 이동이 완료된 세월호.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